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분석

A Study on Supportive Measures to Improve the Job Training and Employment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by Delphi Survey

이오복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O-Bok Lee(agapax@cup.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를 전제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조사도구의 내적 신뢰도 검사를 위해 Kendall's W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자녀, 시부모나 남편, 기관, 그리고 정부 등 5가지 차원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체계화가 가장 높게 나왔고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 시부모와 남편의 배려, 자녀 양육보조 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정부 부처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델파이 조사결과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켈달의 W검증을 한 결과, 중요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일치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업욕구와 연계된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비스 마련, 한국의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교육, 정책적 재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여성결혼이민자 | 취업지원 | 델파이조사 |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services, programs or policies for supporting married immigrant women to qualify themselves for being employed from the professional point of view on the assumption that their desire to get a job is high. To achieve this purpose,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a panel of 13 experts related to multi cultural family support in three sessions from December 20, 2013 to June 5, 2014.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implemented, and Kendall's W for the internal reliability test on the survey instrument was carried out for statistical process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rom the first session, services, programs, and policies in the lev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mselves, children, parents in law and/or husband,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were suggested. The highest item in average is systematization of levelwise Korean teaching program. The next higher items in average are daycare service during job training, parents in law and/or husband's consideration, parenting support services, program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s, linkage and integration system among the government ministries. As a result of the Kendall's W performed for the internal reliability test of the Delphi research,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professionals' view on the supportive measures' important contents was statistically identica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lphi research, systematization of levelwise Korean teaching program most required for the furtherance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entering the workforce, followed by provision of the services to draw family support, a grounding teaching of Korean corporate culture, and reconsideration of the policies.

■ keyword : |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 Support for Job Training and Employment | Delphi Survey |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4년 07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7월 30일

수정일자 : 2014년 07월 30일

교신저자 : 이오복, e-mail : agapax@cup.ac.kr

1. 서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적응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7][12][19]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이 53%를 차지하고[12],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경제력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1]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는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87.9%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한 경우는 33.6%로 보고되었다[6].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빈곤과 취업에 대한 욕구는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됨[2][3][10][11]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에 두어졌던 관심이 그들의 경제적 자립이나 취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한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초기 적응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 연구들에서 제안되었다[8][14][15][20].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입국 전과 후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16].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담이나 취업연계, 기술적인 단기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적 욕구들이 밝혀지고 그러한 욕구들의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설정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나 프로그램들도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기 보다 가시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다수 있었지만, 취업보다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20]이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9]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고, 욕구에 합당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를 이용할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욕구는 당사자에게서 도출하는 욕구조사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로부터 나온 욕구는 자칫 본인의 능력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 주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에는 지식이나 기술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한국어 습득과 낮은 환경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취업이라는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기에 언어와 사회적 지지망 등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혹은 정책 등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공식적 적으로 대화나 상담을 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결혼이민자 프로그램 담당자, 방문생활지도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제나 욕구를 상대적으로 가까이에서 접하는 현장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전문가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혹은 제도들의 중요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원의 체계화에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87.9%인데 반해 실제 취업률은 2009년 현재 33.6%[6]에서 36.9%[15]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은 10.4%,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향은 72.8%[4]로 나타나 취업에의 희망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본국에서 취업하지 않았던 비중도 25.3%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상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38.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출신국 별로 필리핀이 28.7%로 가장 높고 한국계 중국인 24.7%, 캄보디아 23.7%, 베트남, 태국의 순이었다[15].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가 32.5%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자가 17.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4%로 나타났는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높게 나타난 것은 원어민강사나 다문화강사로 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분포는 학력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역도 고학력일수록 어학과 컴퓨터, 정보통신관련에 관심을 가졌고 저학력일수록 음식관련에 관심을 보였다[4].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경로는 대중매체나 전단지가 19.1%로 가장 높고 모국인 친구나 지인의 소개 18.0%, 한국인 친구나 지인의 소개가 15.0%,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의 순이다.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는 5.7%에 그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공공기관의 이용이 아주 낮음을 보여주었다[15].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일자리 알선이 30.1%, 자녀보육/양육 지원 22.5%, 한국어 교육 18.3%, 직업교육 13.9%,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6.3%로 나타났다[6]. 취업을 위한 도움이 다른 이유는 본인과 자녀의 연령, 취업에 필요한 조건이나 장애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인 상태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업무상 애로사항은 언어소통이 22.3%로 가장 높고,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16.6%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고된 일,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과 자녀양육의 순으로 꼽았다[15]. 자녀양육 보다 한국어 의사소통을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한국어교육의 지속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취업 상태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미취업 사유는 자녀양육이 50.7%로 나타나 취업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연령대나 결혼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이들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녀양육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큰 장애로 꼽히는 것은 친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74.9%인데 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중은 11.4%에 불과한 조사결과[15]는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교육에는 한국어나 영어 등 어학이 가장 높은 36.5%,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이 15.1%, 음식/조리가 13.2%, 미용/피부가 9.7%, 운전면허 7.6%, 의복/봉제 6.5%의 순이었다[15]. 이 중 음식/조리, 미용/피부가, 의복/봉제 등은 이들이 원래 습득하고 있는 인적자본과 적성을 고려한 취업 유망직종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소득은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50~100만원이 45.9%, 단순노무자는 63.7%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38.9%[1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저임금 소득수준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41~70시간의 비중이 36.2%로 가장 높고, 71시간 이상 일하는 비중도 23.2%로 나타나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의 일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영향요인은 연령 학력 등 개인의 내적 속성과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이전 취업 경험, 직업훈련경험, 자녀수, 미취학자녀 유무, 가족원 수, 배우자와의 관계 만

죽도, 사회활동 등 외적지지 속성 등 다양하다 [1][13][15][17].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의 경우 자녀의 양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양육의 부담이 낮아지면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양육이라고 한 다른 연구들[13][17]의 결과도 일치한다. 자녀양육의 문제는 다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낸 시부모의 지지 요인과의 연결성을 가진다. 즉 시부모의 지지가 자녀양육의 지지로 이어질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17].

한국어 실력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연구들 [1][13][15][17]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13]. 이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일자리 알선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연구 [17]의 결과와도 연결성을 가진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7], 이러한 기술훈련은 여성들이 가진 다양한 역량과 다른 문화 간의 독특한 경험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한계를 가진다고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은 배우자의 아내 취업에 대한 태도[1], 거주 지역에 따른 교통, 보육시설, 노인인구 등 환경의 조건과 학부모 모임참여 횟수 등과 같은 사회활동도 여성의 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적이다.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취업군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17]. 이것은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일맥 연결되는데, 아내가 국적 취득 후 결혼생활을 이탈할 것을 염려해 국적 취득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밝히거나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전문가의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향상을 위한 방안이나 그 문제들의 우선 순위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적 직관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직관 통해 그러한 지원들의 중요도를 객관화 하고자 델파이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제와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취업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 제도 등과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1. 델파이조사 방법

델파이방법은 집단 추정치가 정답의 범위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반복적인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추정치를 찾으려는 것이다[18]. 델파이방법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고 특정 전문가들의 영향력과 설득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구조화 된 설문지에 대한 개방형 답변을 빈도분석 등의 통계작업을 통해 집단의견을 다른 패널에게 제공하고, 반복적인 조사에 이를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의 합의점을 도출을 유도한다. 델파이조사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통계적 타당도보다는 대상 집단의 역동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10~18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면 적합하다[21]. 델파이 반복 횟수는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지만, 3회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총 3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는 비구조화된 개방형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수렴하고 2차와 3차는 패널들의 답변을 유형화하여 구조화된

질문형식으로 하여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반복조사 시, 빈도분석 결과를 패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전문가 패널 구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델파이에 참여할 전문가 패널 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책임자, 방문생활지도사들로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참여의사를 물었다. 최종 패널은 구두나 이메일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패널의 현황은 [표 3-1]과 같다. 참여 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6세에서 59세까지로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패널들의 근무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종합사회복지관 3명, 대학기관이 1명이었다. 근무경력은 최소 2년2개월에서 최대12년8개월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 근무기간은 6년3개월이었다. 참여한 전문가들의 학력은 학부졸업이 7명, 석사 5명, 박사과정 수료가 1명이었다.

표 1. 전문가 패널 현황

특성	구분	수	퍼센트(%)
연령	39세 이하	8	61.5
	39세 이상	5	38.5
근무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69.2
	종합사회복지관	3	23.1
	대학기관	1	7.7
근무경력	5년미만	4	30.8
	5~10미만	8	61.5
	10~15년미만	1	7.7
학력	학사	7	53.8
	석사	5	38.5
	박사수료	1	7.7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델파이 자료수집은 3차에 걸친 반복조사로 2014년 2월13일부터 2014년 5월28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개방형 질문지와 답변지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회

수된 답변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범주화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답변을 동일한 개념으로 분류하여 구조화된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다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3차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도출된 기본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동일한 질문지의 각 항목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다시 측정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조사도구의 내적 신뢰도 검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도 확인 작업으로 켄달의 W검정을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 수위를 구하여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2차 조사에서 전문가 의견의 총18개 항목의 전체 중요도 평균은 3.97, 표준편차는 .21로 산출되었고 3차 조사에서는 중요도 전체평균이 4.04, 표준편차 .27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패널들의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켄달의 W검정을 실시하였다. 켄달의 W검정은 여러 평가자들의 동의의 정도인 일치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켄달의 W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각 문항에 대한 패널들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1차 델파이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개방형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3-2]와 같이 총 18문항이 도출되었고, 이들 문항은 속성에 따라 5개의 범주로 유형화되었다.

표 2. 1차 델파이 개방형 질문 결과

내용	속성
1. 수준별 한국어교육 체계화 2.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3. 자존감/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4.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5. 한국의 직장문화 소양교육 6. 여성의 기존 기술/능력 평가와 활용 방안개발	본인
7. 자녀 양육 보조서비스 8.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	자녀
9.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 10. 시부모/남편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남편/가족
11. 센터/복지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12. 기관의 형식적, 정치적인 프로그램 제거 13.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연계 14. 네일아트, 미용 등 기술의 별도 실습과정	기관
15. 부처들 간 서비스/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류 16. 부처들 간 연계 시스템과 업무 통합화 17. 취업가능 높은 프로그램에 예산 우선 배정 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방안	정부

1차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본인, 자녀, 남편시가족, 서비스나 프로그램 시행 기관, 그리고 정부차원의 5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내용은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자존감이거나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한국문화 교육,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의 평가와 활용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자녀에 대한 지원내용은 자녀양육 보조 서비스와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가 제시되었다. 남편과 시가족 관련 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시부모나 남편이 배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남편과 시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기관에 대한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기관의 형식적이거나 정치적인 프로그램의 제거,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의 연계, 네일아트나 미용 등 기술의 실습과정이 도출되었다. 정부차원의 지원내용은 정부부처 간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류, 부처들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업무의 통합화, 취업가능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우선 편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방안 등이 제시되

었다.

2. 2차 델파이 분석

2차 조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를 토대로 2차 질문 문항을 도출하여 질문문항들에 대한 중요도(전혀 중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5)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평균 순위는 4.76인 수준별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와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가 각각 4.53과 4.38, 자녀양육 보조서비스 4.30, 한국의 직장문화 교육프로그램이 4.23, 정부부처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업무통합화가 4.15,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4.15, 다문화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4.00, 정부부처 간 서비스/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류화가 3.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켄달의 W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켄달의 일치도 계수 W가 .2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순위결정 방식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순위	내용	M	SD	M. Rank
1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4.76	.43	14.88
7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	4.15	.55	10.42
10	자존감/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3.84	.68	8.54
11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3.76	.59	8.19
5	한국의 직장문화 소양교육	4.23	.72	11.38
13	여성의 기술/능력 평가/활용 방안	3.69	.75	7.62
4	자녀양육 보조 서비스	4.30	.63	11.81
2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	4.53	.51	13.27
3	시부모/남편의 배려	4.38	.65	12.35
17	시부모/남편 상담/교육 프로그램	3.53	.51	6.54
8	기관의 실효성 프로그램 개발	4.00	.40	9.54
12	기관의 형식적 프로그램 제거	3.76	.72	8.00
15	일자리 관련 기관/부서 연계	3.61	.96	7.85
16	자격증 기술의 별도 실습 과정	3.61	.76	7.04
9	정부 부처 간 서비스 분류화	3.92	.95	9.23
6	정부 부처 간 연계/통합 시스템	4.15	.89	10.54
14	취업프로그램에 우선 예산 배정	3.69	.48	7.35
18	정부/지자체의 고용창출 노력	3.53	.66	6.46

N=13, Kendall's W=.261, Chi-Square=57.582, df=17, Sig=.000

2. 3차 델파이 분석

3차 조사에서는 2차에서 나온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 2차 조사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차 조사에서 문항들에 대한 중요도의 결과는 [표 3-4]와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평균 순위는 4.84인 수준별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가 4.53, 자녀양육 보조서비스 4.46,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 4.38, 정부부처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업무통합화가 4.23,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4.15, 다문화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4.07, 한국의 직장문화 교육프로그램이 4.00, 정부부처 간 서비스/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류화가 3.92, 취업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예산의 우선배정이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델파이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에 대한 Kendall의 W 검정 결과는 일치도 계수 W가 .32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순위결정 방식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3차 델파이 조사결과

순위	내용	M	SD	M. Rank
1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4.84	.37	15.54
6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	4.15	.37	10.69
14	자존감/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3.69	.48	7.27
12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3.76	.59	7.77
8	한국의 직장문화 소양교육	4.00	.57	9.54
15	여성의 기술/능력 평가/활용 방안	3.61	.76	6.88
3	자녀양육 보조 서비스	4.46	.51	12.62
4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	4.38	.50	12.38
2	시부모/남편의 배려	4.53	.51	13.46
15	시부모/남편 상담/교육 프로그램	3.61	.50	6.88
7	기관의 실효성 프로그램 개발	4.07	.49	10.12
11	기관의 형식적 프로그램 제거	3.84	.55	8.08
17	일자리 관련 기관/부서 연계	3.53	.87	7.04
13	자격증 기술의 별도 실습 과정	3.69	.63	7.46
9	정부 부처 간 서비스 분류화	3.92	.64	8.65
5	정부 부처 간 연계/통합 시스템	4.23	.72	11.35
10	취업프로그램에 우선 예산 배정	3.84	.98	8.50
18	정부/지자체의 고용창출 노력	3.53	.66	6.77

N=13, Kendall's W=.321 Chi-Square=71.036, df=17, Sig=.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에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혹은 제도들의 중요도를 확인함으로써 지원의 체계화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향상 지원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4.76),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4.53),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4.38), 자녀양육 보조서비스 (4.30), 한국의 직장문화 교육프로그램(4.23), 정부부처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업무통합화(4.15),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4.15), 다문화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4.00), 정부부처 간 서비스/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류화(3.92), 자존감/자신감 향상 프로그램(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4.84),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4.53), 자녀양육 보조서비스(4.46),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4.38), 정부부처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업무통합화(4.23),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4.15), 다문화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4.07), 한국의 직장문화 교육프로그램(4.00), 정부부처 간 서비스 /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류화(3.92), 취업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예산의 우선배정(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와 3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은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체계화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와 취업 상태인 당사자의 업무상 어려움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 양인숙 외의 연구[15]는 취업 상태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업무상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언어소통이며 취업교육 중에서 가장 요구하는 교육을 언어로 꼽았다. 김병숙 등의 연구[5]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각하는 취업의 가장 큰 장벽을 서툰 한국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1순위가 한국어교육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당사자의 욕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원내용은 자녀와 관련된 탁아서비스와 양육 보조서비스는 취업희망자 중 5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녀양육부담을 들었던 다른 연구들[6][13][17]과도 일치한다.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는 남편의 부인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여성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강혜정의 연구[1]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

네 번째 중요한 순위로 나타난 자녀양육보조 서비스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의 장애요소로 자녀양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선행연구[6]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다섯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한국의 직장문화에 관한 소양교육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이는 당사자들은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인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이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제안된다.

그 외에 센터나 복지관 등 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제거, 정부 부처 간 연계와 통합 시스템 구축,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존감/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관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제거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제거 또한 상명하달식의 지시적이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의 1순위가 일자리 알선이라는 연구[17]와 취업 장벽의 3순위로 나타난 김병숙 등의 연구[5]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연계가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차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일자리알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표출하였다면, 전문가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이후 일자리 유지도 염두에 두고 취업향상의 지

원내용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잦은 이직과 취업이 어려운 원인을 한국의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차원의 부처 간 연계와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나 서비스 분류화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정책수행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정책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 목적달성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흐름보다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서미진의 연구[5]가 지적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수혜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방안의 근거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는 취업 욕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목적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교육체계의 단일화 및 통합화도 재고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다. 시가족과 남편에게 약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가 시부모나 남편의 부동의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좌절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탁아서비스와 자녀양육 보조서비스는 다른 연구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도 동일한 중요 지원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이나 시부모를 위한 상담이나 의식교육 또한 취업 향상의 한 방안으로 제안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장문화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은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국생활 적응과는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 전 직장생활 적

응을 위한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직장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자주 접촉하고 그들의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지원방안이다. 이는 직장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작용하여 직장생활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해고나 이직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정책적인 제고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들은 정부의 지침과 권고에 따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주관 부처가 다르기도 하고 많은 부분 프로그램 시행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효성 있는 시행 및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13명이고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적 편중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를 전제로 그들의 취업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얻었다. 도출된 지원방안 중에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욕구와 다른 새로운 내용들도 다수 밝혀졌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향상을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강혜정,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9집, 제2호, pp.49-73, 2012

[2]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2007.

[3] 경상북도,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2007

[4] 고혜원, 김상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방안 : 언어·문화 자원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5] 김병숙, 안운정, 송혜령,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5권, 제2호, pp.235-258, 2010.

[6] 김승권, 김유경, 조애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 김이선, “제자리를 찾아야 할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여성정책연구원 센터리뷰, 제4권, pp.22-31, 2008.

[9] 김정옥, “도농복합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 요구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3호, pp.69-90, 2012.

[10]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분석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0.

[11]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12]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6.

[13] 서미진, “경혼이민자의 취업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pp.1-10, 2010.

[14] 손기영,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창업 지원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9-36, 2010.

- [15] 양인숙, 민무숙,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1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2014.
- [17] 이은희, 이은미,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1호, pp.66-72, 2012.
- [18] 이종성, *텔파이 방법*, 서울:교육과학사, 2001.
- [19] 정일선, “길찾기-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발표집*, pp.127-144, 2007.
- [20] 홍성희, 김성숙,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19-146, 2009.
- [21] C. Okoli and S. Pawlowski, “The Delphi method as a research tool: an example, design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 Management*, Vol.42, No.1, pp.15-29, 2007.

저 자 소 개

이 오 복(O-Bok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콘텐츠, 사회서비스, 이민자